

병원중심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척도 개발

홍정숙(동아대학교 의료원)
이가연(동아대학교 간호학과)

최근 우리나라는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병원에 소속된 가정전문간호사의 수요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병원 중심의 가정간호사들은 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가정이라는 독특한 현장에서 혼자서 간호를 시행해야 하기에,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병원의 일반간호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정간호를 주제로 다룬 연구 중에서 가정전문간호사의 스트레스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병원중심의 가정전문간호사 업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시도한 방법론적 연구(Methodological Research)이다. 연구는 개념적 기틀 형성, 예비문항 작성, 내용타당도 검증, 문항분석 및 신뢰도 검증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일차적으로 국내외에서 개발된 간호사 스트레스 척도(김매자와 구미옥, 1984; 배정리와 서문자, 1990; 홍근표, 1984; 박혜자, 1986; 박성석 1995; Bailey, Steffen, Grout, 1980; Gray-Toft, Anderson, 1981; Walcott-Mcquigg와 Ervin, 1992)와 간호사 스트레스 요인을 밝혀낸 문헌고찰과 연구자의 실무경험 등을 토대로 가정전문간호사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여 개념적 기틀을 형성 하였다. 또한 문항의 내용적 측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재 실무에 있는 부산시 소재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정전문간호사 7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2003년 5, 6월에 걸친 심층면담을 통하여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진술문 135개를 추출하였다. 위의 개념적 기틀과 심층면담과정을 통하여 8개 요인 60개의 1차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1차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하여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Content Validity Index(CVI)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51문항의 2차 예비문항이 선정되었다. 채택된 2차 예비문항으로 전국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87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정전문간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2003년 8, 9월에 걸쳐 자료수집을 하여 SAS 8.0으로 분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병원중심 가정간호사 스트레스 척도는 8개 요인, 과중한 업무 8문항, 전문지식과 기술 5문항, 윤리적 갈등 4문항과 역할 갈등 5문항, 대인관계 6문항, 방문 가정환경 9문항, 가정방문 이동시 상황 4문항과 행정지원 부족 9문항의 총 50문항이 해당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는 0.948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로는 0.649에서 0.841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정전문간호사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이들이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시도는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 있는 병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의 전수가 적어, 도구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다양한 방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지 못한 점은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본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본 연구결과를 병원중심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측정에 사용할 것을 제언한다.